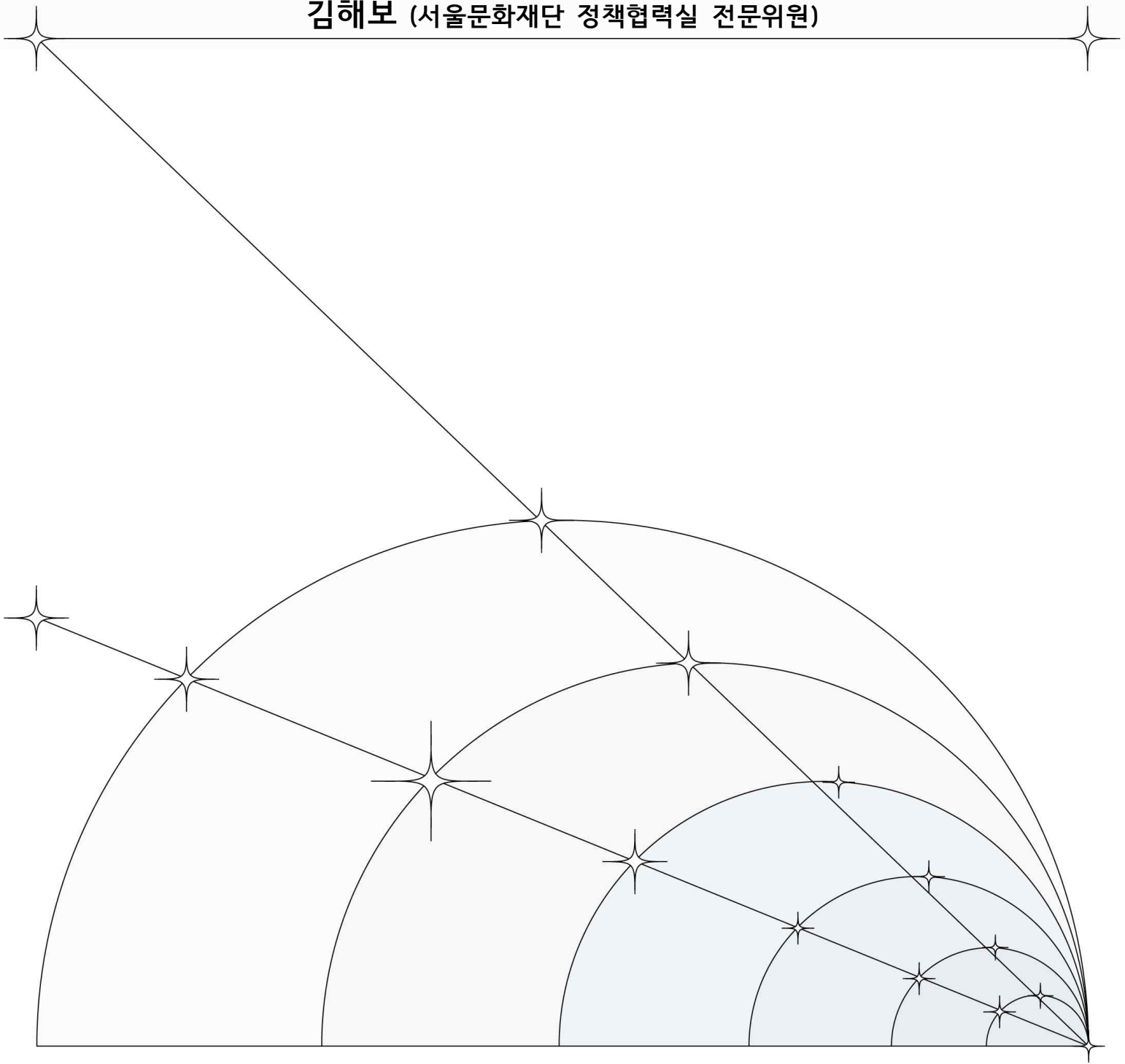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리뷰』

Part #1.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리뷰』

Part #1.

김 해 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난 10.15.-17 암스테르담에서 WCCF 2025 서밋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도시문화포럼 (World Cities Culture Forum : WCCF)>이 2012년 공식 발족 후 매년 서밋을 개최해오고 있는데, 암스테르담시가 7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10년만에 두 번째로 서밋을 유치하였습니다. 서울, 런던, 뉴욕 등 WCCF 회원도시와 보고타 등 7개 옴저버 도시를 포함하여 총 55개 도시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행사였습니다. 각 나라의 수도급 글로벌 도시들의 문화부시장, 문화기관 대표, 문화정책전문가, 예술가, AI, 펀드레이징 전문가 등 200명이 모여서 사흘 동안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세계 문화정책의 흐름을 읽어봅니다.

서밋 개최도시 암스테르담은 그 자체로 문화정책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는 도시입니다. 실용성과 개방성을 추구한 상인들이 주도해 온 도시의 발자취는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도시 문화정책에 고스란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암스테르담 북부의 NDSM-werf 창조허브 현장 투어에서 만난 “Make Art Not €”라는 구호와 예술가 자립운영 모델은 우리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첨단 산업의 현장이었던 조선소의 산업유산이 <X-Helling>라는 예술가의 창작공간으로 재구성되는 이야기, 노동자의 점심 도시락에서 자라나 역사유산이 된 사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한국의 미래를 흔들고 있는 미국의 탐욕(MASGA)과도 연결되어 재미있습니다.

WCCF가 3년마다 발간해 오고 있는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5번째 버전이 이번 서밋에서 선보였습니다. 특히 각 도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키워드 입력으로 원하는 분석을 인터랙티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Data Explorer>를 론칭한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문화정책은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를 향한 열망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통계로 올라오는 숫자의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기반 증거(Policy-based Evidence)>가 되지 않게 매우 객관적인 의도로 진행하더라도, 우리는 문화지표의 정의를 절대 합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어와 사회맥락과 그 숫자 파악의 목적 자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WCCR 발간을 총괄했던 John Newbigin은 “심지어 <도시>의 개념조차 합의할 수 없다. 그것은 행정구역인가 지리적 경계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략 함께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지표 개념 합의에 만족하는 것이 옳다. 그런 불확정성을 견디는 것(bear with the uncertainty)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다”고 주장합니다.

AI와는 연결되어도 인간과의 소통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존재를 여실(如實)히 알아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감이라면,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가 공감에 이를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 서밋을 후원한 넷플릭스가 “사람들의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바로 넷플릭스이다”고 공공연히 자랑하는 시대에, 문화정책가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의 언어는 어떠해야 할까요? 11월 4일에 DDP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예술포럼_SAFT(Seoul-Arts-Future Talks)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t.kr/>)



개막행사에서 “문화는 공감을 실천하는 것(Culture = Empathy in Action)”라며 문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저스틴 사이몬스 WCCF 의장 겸 런던문화부시장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 목 차 >

1.	WCCF 2025 ... 진부하지만 감동적인 가치를 떠받치는 글로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Stronger together (2) Culture = Empathy in Action (3) AI와 엄마 젖 .. 세상 모든 것의 양면성에 대하여 (4) 정책가의 토론 보다 강한 예술가의 목소리
2.	암스테르담 ... 소설해서 더 힘찬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XXX 750 (2) 수평선 위 매우 실용적인 도형들의 힙함 (3) NDSM ... 유조선이 미끄러지던 지붕 옆 사과나무 (4) Make Art Not €
3.	WCCR ver. 5... 정책기반 증거(Policy-based Evidence)를 넘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Data Explorer (2)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를 향한 열망? (3) 숫자 새롭게 보기 ... City Attractiveness Compass (4) 존재를 여실(如實)히 아는 데 필요한 것 ... 정책의 숫자 대신 예술의 이야기?



1. WCCF 2025 ... 진부하지만 감동적인 가치를 떠받치는 글로벌 네트워크

(1) Stronger together

지난 10.15부터 사흘간 암스테르담에서 WCCF 2025 서밋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간 문화정책 교류 협력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 WCCF)>는 2012년에 발족한 후 매년 서밋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시가 10년 전 2014년에 서밋을 개최한 바 있고, 올해 시 7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두 번째로 서밋을 유치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수도급 글로벌 도시들의 문화부시장 등 문화정책전문가와 예술가, AI, 펀드레이징 전문가 등 총 200명이 모여서 사흘 동안 나눈 이야기 속에서 세계 문화정책의 흐름을 읽어봅니다. (상세 리뷰 별첨 참조¹⁾)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개요

- **행사기간** : 2025.10.15.-17. (사전 행사로 European Cities Meeting 진행 : 10.14)
- **행사장소** :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Bimhuis, Muziekgebouw, Rijksmuseum, Stedelijk Museum 등
- **행사주제** : "Stronger Together ; Culture in a Changing World"
- **참가도시** : 전 세계 55개 도시 (Boston, Beijing 등 신규 회원, 보고타, 리마, 파나마, 키토, 산티아고 등 7개 옵저버 도시 포함, 역대 최대 규모)
- **주 최** : City of Amsterdam × 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
- **개최배경** : 암스테르담 시 7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1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함
- **협력기관** : 블럼버그 재단, Calouste Gulbenkian 재단, ITAU, 영국문화원, Kenneth Rainin 재단, Democracy Net, MoMo, 넷플릭스, UCCI, 줄리의 자전거 등

WORLD
CITIES
CULTURE
FORUM

AMS
XTER
DAM
SUMMIT 2025



WCCF 사무국에서는 이번 포럼이 서울, 런던, 뉴욕 등 WCCF 회원도시들과 보고타, 산티아고 등 7개 옵저버 도시를 포함하여, 총 55개 도시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²⁾. 특히 사전 행사로서 <European Cities Meeting>이 서밋 하루 전에(10.14)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WCCF가 독립 법인화 한 후 전 세계 문화정책 컨설팅 씽크 탱크로 자리잡기 위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지역적 확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읽힙니다. 블럼버그 재단 등 오랫동안 후원 및 협력관계를 가져온 기관을 넘어, 넷플릭스, Democracy Net,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조직들과 협력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AI 전문가 등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하여 문화정책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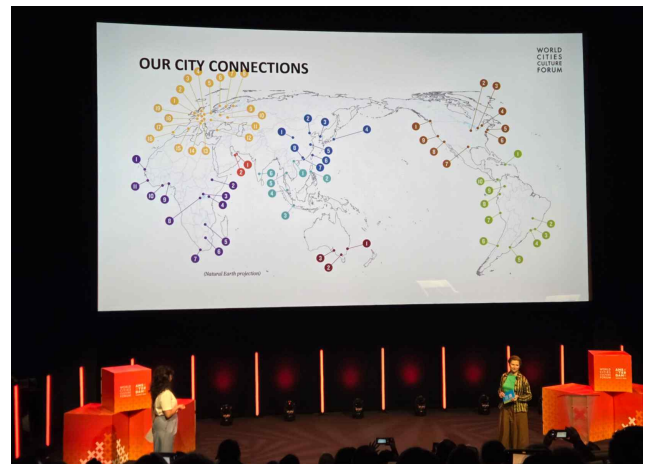
1) WCCF 홈페이지(<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

서밋 행사 홈페이지 (<https://wccs-amsterdam.cventevents.com/event/wccs2025/summary>) 참조

2) WCCF 사무국 발간 리뷰 뉴스레터 "Culture and Connection in Amsterdam" (2025.10.22, World Cities Culture Forum) 참조



WCCF Amsterdam Summit 2025 참가자들
(사진 출처 : 암스테르담 시청, WCCF 사무국)



폐막식에서 WCCF의 네트워크의 지역별 확장 현황을 보여주는 Laia Gasch WCCF 사무국장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이번 서밋의 전체 주제는 “Stronger Together ; Culture in a Changing World (함께 더 강하게 ;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였습니다. Justine Simons 런던 문화부시장 겸 WCCF 의장은 개막연설에서 “매우 심플한 진실은 이 서밋의 목적이 공감과 협력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흘간의 토론을 종합하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문화는 도시의 회복력·민주주의·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는 점과 “협력을 위해 공감(Empathy)과 리더십(Leadership)을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개막식에서 행사 주제 “Stronger
Together ; Culture in a
Changing World”를 설명하는
Justine Simons WCCF 의장 겸
런던문화부시장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매년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언어들이 모여서 문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진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술대회와 달리 그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문화 현장에서의 성공담과 실패의 교훈을 진솔하게 나누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매우 열정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전 세계 도시의 문화정책 활동가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런 대화가 바로 문화의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게 떠받치는 그물망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Culture as a Force for Good"

_ Lonnie G. Bunch III (Secretary, Smithsonian Institution)
: 개막식 영상 대담 중에서

"세상이 사과라면 문화가 그 고갱이다(If the world is the apple, culture is the core)"

_ Ralph Remington (Director of Cultural Affairs, San Francisco Arts Commission)
: 개막토크에서



서밋 2일차. Tommi Laitio 전 헬싱키시 문화국장이 진행한 WCCF 펠로우십 프로그램 개발 관련 워크숍 장면. WCCF 서밋은 각 도시의 문화정책 책임자급 인사들이 3일 내내 이어지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임. (사진 출처 : 암스테르담 시청, WCCF 사무국)

(2) Culture = Empathy in Action

스미소니언 박물관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무총장인 Lonnie G. Bunch 3세 (Secretary, Smithsonian Institution)는 개막식에 영상으로 중계된 Justine Simons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문명의 흐름을 주도하던 세계화와 세계시민의 협력 정신은 지금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경선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묶여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기에 쉬운 듯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AI와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상에서도 오히려 인간 동료와 함께 가치를 나누며 일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리더와 젊은 세대들은 서로의 감정을 일기 아닌 곳에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서밋에 참여한 몇 사람만 붙들고 얘기해 봐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이번 서밋에서 협력을 위한 공감리더십,

그리고 다음 세대 육성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서밋 둘째 날에는 “Stronger Together”을 주제로 문화리더들의 대담과 분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꼭 필요한 기획이지만, 무대에 올라간 부시장급 리더들의 끈대스러움에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공감형 리더십·협업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Touria Meliani(암스테르담 문화부시장), Ralph Remington(샌프란시스코 문화국장), Tommi Laitio(헬싱키 문화국장)이 토의하는 장면 (사진 출처 : 암스테르담 시청, WCCF 사무국)

Justine Simons(런던 문화부시장 겸 WCCF 의장)는 개막연설에서 협력에 필요한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문화는 공감을 실천하는 것(Culture = Empathy in Action)”**라며 문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열정으로 헤쳐 나온 문화정책 리더들의 <가치 중심>의 세계관이, “너무나 수평적인” 조직 안에서 젊은 세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공감은 타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두가 가진 공감의 마음을 보여줄 용기가 없을 뿐이다. 공감은 증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문화가 그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 문화는 공감을 실천하는 것이다(Culture = Empathy in Action.”

– Justine Simons(런던 문화부시장 겸 WCCF 의장) : 개막연설 중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차세대 문화리더를 키우기 위한 WCCF 펠로우십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는 워크숍 세션의 좌장을 맡은 Tommi Laitio 전 헬싱키시 문화국장은 <충돌과 조화 속에서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맘에 들지 않는 삼촌과 대가족으로 함께 사는 모습”으로 비유한 협업 분위기 정도만 되어도 일할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직원에게 너무 많을 걸 요구하는, 너무나 수평적인 조직이다”.

“(리더십 세션에서처럼) 자신의 역사가 곧 진리라고 믿는 리더들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

_ Merel Oord (International cultural affairs, Policy Advisor Arts and Culture, City of Amsterdam)
: 3일차 야간문화 투어 식사 자리 대화에서

“포르투갈어로 <콘비벳시아 : convivência>라는 말이 있다. 서로 충돌하며,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모여서 즐겁게 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맘에 들지 않는 삼촌과 대가족으로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충돌과 조화 속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_ Tommi Laitio (Founder, Convivencia Urbana, Former Executive Director for Culture and Leisure, Helsinki) 2일차 플레너리 “Reflections on Leadership”에서

공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리더에게는 참으로 미묘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감리더십에는 개인과 조직, 나와 너의 관계를 새로 해석해야 가능할 것인데, 기존의 서양적 세계관으로 묘책을 찾기 힘들다면 동양적 사고로 전환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장은 문화는 각자의 삶 자체로 보는 캐나다 원주민의 관점을 전해주었고, 서울에서 온 참여자는 “물(物)들이 서로 섞임”을 뜻하는 문(文)의 의미와, 공감적 소통을 위해 “팔 길이”가 아니라 “팔들의 길이(Arms’ Length)” 원칙을 동양적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일할 때 만났던 원주민 인디언들의 말에는 문화를 따로 부르는 말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모두가 문화라고 인식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에게 <우리> 기관이 ... 라고 얘기하면 <너의> 기관이 어떻게 <우리> 기관이냐고 반문한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문화가 있다)

_ Branislav Henselmann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Ballet, Associate, World Cities Culture Forum) : 갈라 디너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 대화에서 (문화와 文의 개념 설명에 대해)

“하나의 팔 길이가 아니라, 상대와 나, 두 개의 팔 길이를 고려하는, “Arms’ Length Principle”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공감이다”

“개별자를 중시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원리를 중시하는 서양의 관점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기대어 있음 : 因緣과 相然>과 <하지 않음의 함 : 無爲之爲>를 이야기하는 동양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봐라”

_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 3일차 야간문화 투어 식사 자리 Merel Oord과의 대화에서

(3) AI와 얼마 쯤 .. 세상 모든 것의 양면성에 대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 리더들이 사흘 동안 얘기하는 문화정책 포럼의 의제들 속에서 동시대 문화정책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밋은 총 35개의 플레너리·패널·챌린지·워크숍·글로벌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테마는 리더십(Leadership), 공감(Empathy), 데이터(Data), AI, 기후(Climate), 야간문화(Night Economy) 등이었는데, 아래와 같이 10개 항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전체 토의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문화는 회복력 있는 도시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의 엔진이다” 로 요약되지만, 다루어야 이슈들은 문화의 가치부터 AI 기술까지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슈가 다양해진 만큼 문화정책가 외에 예술, AI-테크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 초청하여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모습 그 자체를 다루어야 하는 문화정책의 지금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세션 주제 요약		
주제 구분	관련 대표 세션	핵심 논의 포인트
1)청년과 미래세대	Day 1 – “Growing Up With Culture: What Does the Next Generation Want?”	Z세대·알파세대가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혁신.
2)야간경제와 창의공간	Day 1 – “Future-Proofing the Night: A Wake Up Call!” Day 1 – “Space for Culture: The Fight Back!” Day 3 – “Night Culture Tours” Day 3 – “Creative Hubs Tours”	야간경제, 창작공간 보호, Creative Land Trust 운동 등. 암스테르담 브루트플라첸 (Broedplaatsen) 정책 및 현장탐방.
3)기후행동과 지속가능성	Day 1 – “Climate Action: Is Culture the Missing Link?”	문화부문을 통한 기후행동·스토리텔링·순환경제 모델 구축.
4)리더십과 협력	Day 2 – “Stronger Together: Reflections on Leadership” + Empathy Workshops / Global Fellowship Planning Day 2 – “Global Café”	공감형 리더십, 협력기반 리더십 모델, 세대 교체와 정책 학습교류.
5)데이터와 문화정책 혁신	Day 1 – WCCR 2025 공식 발간 Day 2 – “Making Culture Count: Data for Impact” Day 3 – WCCR Data Explorer 소개	WCCF Report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 문화정책의 확장.
5)문화권리와 민주주의	Day 2 – “Culture as a Fundamental Right” Day 3 – “What if... Culture Safeguarded Democracy's Future?”	문화 접근권과 문화민주주의, 시민토론공간으로서의 문화기관.
7)기술과 AI	Day 3 – “What if... AI Wrote Your Next Cultural Policy?”	AI의 문화정책 적용, 디지털 격차와 윤리적 문화전환.
8)문화경제와 자금조달	Day 2 – “What’s Next for the Creative Economy?” Day 3 – “What if... Cities Could No Longer Rely on Public Funding for Culture?”	문화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 자금모델, Netflix-Rabobank 사례.
9)문화와 건강·웰빙	Day 3 – “What if... Our Most Powerful Medicine Was Culture?”	문화·예술을 통한 정신건강·사회적 치유 시스템 구축.
10)도시재생과 장소성	Day 2 – “Urban Planning: Culture at the Heart of Regeneration”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공간정책 사례(Cologne, Amsterdam).

이제는 AI가 논의되지 않는 문화정책 토론행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서밋에서도 AI는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3일 차 “Ideas for the Future(미래 도시에서 문화의 역할 탐색)” 세션에 패널로 참여한 Lauren Hendry Parsons(Director & Digital Rights Advocate, Mozilla Foundation)가 “What if... AI wrote your next cultural policy?” 분임토의(13) 세션 요약 별첨 참조)를 따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밋 3일차 “Ideas for the Future” 세션 중 문화예술계의 AI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Lauren Hendry Parsons (Director & Digital Rights Advocate, Mozilla Foundation)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뉴욕에서 온 참여자는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모두가 AI를 얘기한다. 다른 사람들이 미적분(calculus)을 공부하는 동안 나는 아직 산수 공부(algebra)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며 걱정했습니다. AI 전문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보고타의 <Barrios Vivos>(활기찬 동네 프로젝트), Cultural Plan Development (문화계획 수립) 사례, 암스테르담의 <Language for All>, <AI 필적 분석으로 시 아카이브 공개>, <Chat Amsterdam> 등의 활용 사례는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I를 거부하는 대신, 우리의 가치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암스테르담 시청 AI 담당자의 말이 양쪽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암스테르담은 2020년 9월 헬싱키와 함께 세계 최초로 'AI 알고리즘 공공 등록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알고리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조달할 때 인권 관련 쟁점을 4단계에 걸쳐 검토하도록 하는 '기본권 및 알고리즘 영향평가(Fundamental Rights and Algorithms Impact Assessment)'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 제도 하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Lauren Hendry Parsons은 **“AI의 활용이 한 집단의 고통을 다른 집단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What if... AI>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AI를 거부하는 대신, 우리의 가치로 통제해야 한다.”

“AI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민주성, 혁신을 함께 주입해야 한다.

(Make sure to feed AI fairness, democracy and innovation. Not only data.)”

_ Bas Beekman (Program Director, StartupAmsterdam, City of Amsterdam) : 3일차 “What if... AI wrote your next cultural policy?” 세션에서

“AI는 입력한 데이터만큼만 정확하다(Any AI is only as good as the data you feed int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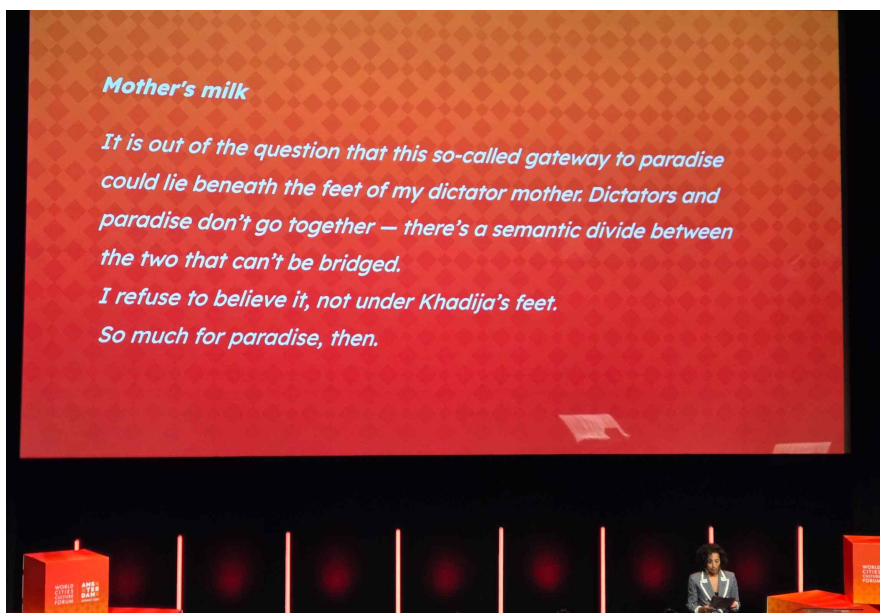
“AI가 문화정책을 작성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AI를 잘못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인간과 기계의 업무를 신경써서 구분해야 한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은 인간이 검증해야 하며,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필요하다”

“AI의 활용이 한 집단의 고통을 다른 집단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Don't let AI pass the pain from one group to another). AI의 사용이 다른 어딘가에서 고통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_ Lauren Hendry Parsons (Director & Digital Rights Advocate, Mozilla Foundation) : 3일차 “What if... AI wrote your next cultural policy?” 세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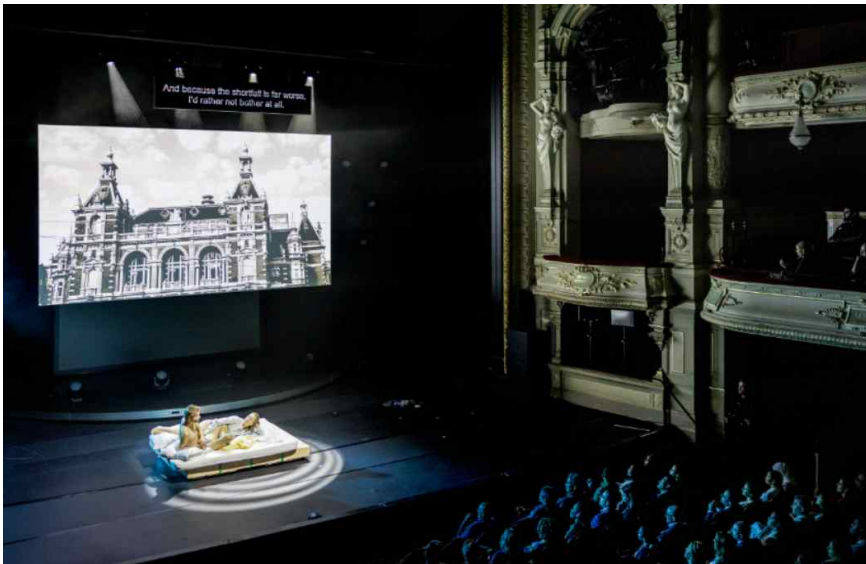
3일 차 서밋 폐막식은 시인이자 번역가, 소설가인 Nisrine Mbarki Ben-Ayad(니스린 엠바르키 벤-아이야드)이 “엄마의 젖(Mother's Milk)”이라는 문학작품을 읽는 퍼포먼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엄마의 젖으로 표현되는, 신성하지만은 않은 모성의 양면성을 통해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폭력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민지 가족의 트라우마, 출산과 젖으로 이어지는 인간 생명의 본질 속에서 화자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발아래서 천국을 찾지 않겠다(It is out of the question that this so-called gateway to paradise could lie beneath the feet of my dictator mother... Dictators and paradise don't go together)”고 선언합니다. 공공정책은 늘 양날의 검을 다루는 딜레마 해결 과정의 연속입니다. 엄마의 젖이 나를 키우는 한 없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나를 억누르는 독재일 수도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계속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존재로서, 어머니의 젖의 어느 한쪽만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술가는 작품 속 화자의 말을 빌려서 “그녀의 발아래서 천국을 찾지 않겠다”며 개인의 자유를 선택하지만, 공공정책 수행자에게는 이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폐막식에서 시인, 번역가, 소설가인 Nisrine Mbarki Ben-Ayad(니스린 엠바르키 벤-아이야드)이 “엄마의 젖(Mother's Milk)”을 읽는 퍼포먼스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4) 정책가의 토론 보다 강한 예술가의 목소리

이번 서밋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가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축하 공연이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포럼의 주제를 정책가의 토론보다 더 강하게 각자의 예술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개막 공연에서는 모두 젊은 예술가들의 무언극, 노래, 발레가 이번 포럼의 주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배우 2명의 대사로 예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는 무언극의 자막으로 “예술가는 누구인가? 모두가 예술가이다.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세상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술가지!”라는 대사가 투사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은 뭐지?”라며 갑자기 암전될 때, 그 대답은 객석에 앉은 정책가들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리남계 네덜란드 싱어송라이터 장구 매크루이(Jeangu Macrooy)가 “Birth of a New Age”로 개막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은 암스테르담 문화정책의 기초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모국어인 스라난 통고(Sranan Tongo)로 부르는 후렴구 “Yu no man broko mi (너는 나를 부술 수 없다)”로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향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배우 2명의 자막 대사로 예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개막공연 중 한 장면
 “예술가는 누구인가? 모두가 예술가이다.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세상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술가지!”라는 대사를 주고 받던 공연은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은 뭐지?”라며 갑자기 끝남.
 (사진 출처 : 암스테르담 시청 및 WCCF 사무국)



아프리카 수리남계 네덜란드 싱어송라이터 장구 매크루이(Jeangu Macrooy)가 “Birth of a New Age”로 개막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 모국어인 스라난 통고(Sranan Tongo)로 부르는 후렴구는 “Yu no man broko mi (너는 나를 부술 수 없다)”(사진 출처 : 암스테르담 시청 및 WCCF 사무국)

사실 우리 도시에서도 둘러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암스테르담 시내를 관광객 모드로 산책하면서 만난, 우주복 입은 <The Thinker>(생각하는 사람, Joseph Klibansky 작)나, 죽은 가로수가 속이 텅 빈 사람으로 환생한 <Houtkunst Route (나무예술 거리)> 프로젝트의 한 작품도, 인간이 여전히 생각하는 존재여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서밋 개막식 공연 직후 Justine Simons WCCF 의장과 나눈 대화는 예술가에게서 받은 영감이 주는 희열과 함께 번아웃 된 동료 문화행정가들에 대한 애뜻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창발하는 영감이 번잡스러운 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책가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것은 조직과 리더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산책길에서 영감을 만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램브란트 광장에 세워진
<The Thinker : 생각하는 사람>
Joseph Klibansky의 작품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죽은 가로수를 활용한 목조각
공공예술 프로젝트 “Houtkunst
Route : 목조각 예술길”의 작품
중 하나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2.	암스테르담 ... 소셜해서 더 힙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XXX 750 (2) 수평선 위 매우 실용적인 도형들의 힙함 (3) NDSM ... 유조선이 미끄러지던 지붕 옆 사과나무 (4) Make Art Not €
3.	WCCR ver. 5... 정책기반 증거(Policy-based Evidence)를 넘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Data Explorer (2)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를 향한 열망? (3) 숫자 새롭게 보기 ... City Attractiveness Compass (4) 존재를 여실(如實)히 아는 데 필요한 것 ... 정책의 숫자 대신 예술의 이야기?

는 다음 주에 연재됩니다.

※ 관련 상세자료는 <별첨.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요약>을 참조하세요.

※ 이슈페이퍼에 사용된 기사들과 보고서 원본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채널에 수시로 게시됩니다. ►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phcLQTIMWII4Y2U1>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ea@sfac.or.kr)

Vol. 2025-10월

『WCCF 2025 암스테르담 서밋 리뷰』 Part #1.

집 필 :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발 행 일 : 2025년 10월 30일

발 행 인 : 송형중

발 행 처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기 획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편 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 자 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블로그
[문화+정책] 바로가기



문화예술 뉴스 스크랩
텔레그램채널바로가기

